

# 파니움 - 넘버원

## 제11장

Jeff Pippenger

2025-02-25

한동안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40절의 감추어진 역사에 초점을 맞춰 왔고, 최근 몇 주 동안은 주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27절로 이끄셨습니다:

이 두 왕은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겠으나, 그 일이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끝은 정해진 때에야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1:27.

처음에는 그 세부 사항, 곧 언제, 어디서, 그리고 그 탁자에 앉아 서로에게 거짓을 주고받던 이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지만, 이제 이러한 질문들은 검토 중이다. 지난 몇 차례의 안식일 동안 나는 이 구절들을 다루면서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내가 섭리적 인도라고 믿는 바를 통해, 가이사랴 빌립보로 상징되는 13-15절의 동맹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직 다듬어야 할 요소들이 남아 있지만, 주께서 이 구절들에서 손을 거두시어 그 의미를 드러내셨다고 믿는다.

지난 안식일에 있었던 줌 모임 직후, 이 깨달음이 곧바로 또렷해졌다. 그보다 한 주 앞서, 나는 10~15절에 나타난 여러 역사들의 정교한 상호작용에 깊이 사로잡혔다. 나는 내 생각의 개요를 몇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금요일 저녁에 그것을 나누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 안에 대단히 중대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구절들 속의 논점들을 정리해 보려 했다. 분명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과는 달랐다. 이 본문과 씨름하며 지난 일주일 반 동안 비틀거렸지만, 나는 익숙한 섭리의 손길을 알아보았다. 주께서 특별하고도 중대한 진리의 봉인을 여시고 계셨던 것이다. 인간적인 요소가 완전히 드러나 옆으로 제쳐지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열어 주신 그 진리는 내가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 제5절부터 제9절까지

푸틴은 남방의 왕으로서 프톨레마이오스를 닮아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11절을 성취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라피아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의 승리는 이 구절을 성취했으며, 푸틴의 임박한 성공을 예표한다. 5-9절은 교황권의 1,260년 통치(538-1798)를 예고하는 역사를 치밀하게 서술한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과거에 거듭 탐구되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5-9절에서 성취되고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기간에 메아리친 하나의 예언적 이정표를 강조하겠다.

이 시기는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시작되었고, 남쪽 왕이 자신의 딸을 북쪽 왕에게 시집보내면서 그 조약이 확정되었다. 이 결합으로 시작된 7년의 기간은 남쪽 왕이 북쪽을 침공해 북쪽 왕을 사로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으며, 그 포로가 된 왕이 나중에 말에서 떨어져 사망하면서 끝났다.

## 위반된 조약

그 침공은 파기된 조약에서 비롯되었다. 7년의 기간이 시작되자 북쪽의 왕은 남쪽 공주와 혼인해 조약을 확보하려고 첫 왕비를 내쳤다. 이후 그는 남쪽 왕비를 내치고 첫 왕비를 복위시켰다. 이 일로 첫 왕비는 남쪽 왕비와 그녀의 수행원을 처형했으며, 이는 이집트에 있던 남쪽 왕비의 가문을 격분시켰다.

예언적 통찰로 볼 때, 7년은 3년 반씩 두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십자가 전과 후의 각 3년 반에서 잘 드러나며, 그 둘이 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주간을 나타낸다. 3년 반이라는 패턴은 또한 기원전 723년부터 1798년까지 이스라엘 북왕국에 임한 '일곱 배'의 저주에서도 확인된다. 그 '일곱 배'는 538년을 중간 지점으로 하여 1,260년씩 두 기간으로 나뉜다. 이처럼 일곱이 3년 반의 두 기간으로 나뉘는 예들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주간'을 나누어 보면, 십자가가 그 중심을 이루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친히 복음을 전하셨고 이어서 제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그 복음을 전했음이 드러난다. 북왕국에 대한 '일곱 때'에서 538년은 역사를, 먼저 이교가 성소와 군대를 짓밟던 기간과, 이어서 같은 기간 동안 교황권이 성소와 군대를 짓밟던 기간으로 나뉜다. 예언적 상징에서 '일곱'은 '세 때 반'으로 표현되며, 이는 다시 42개월, 3일 반 또는 3년 반, 1,260, 2,520,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된다. 문맥상 이 모든 수치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집트를 지배하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장군)의 후손들이 다스린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대부분을 지배하던 셀레우코스 1세(알렉산드로스의 또 다른 장군)의 후손들이 다스린 셀레우코스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기원전 253년에 제2차 시리아 전쟁을 종결시켰다. 그 전쟁은 그보다 7년 앞선 기원전 260년에 시작되었다. 조약이 비준된 지 7년 뒤인 기원전 246년에 그 조약은 파기되었다. 열네 해, 두 개의 7년 기간으로 나뉜다. 첫 절반은 전쟁이고 둘째 절반은 평화이다. 이 열네 해는 제2차 시리아 전쟁으로 시작하여 제3차 시리아 전쟁으로 끝난다. 역사 속 이런 유형의 대칭성은 그 역사가 11장 5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그 조약과 그 파기가 그 구절들의 초점이며, 그 구절을 성취한 역사에서도 중심을 이룬다.

이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교황권 지배와 일치한다. 그 시대의 말기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교황청과 조약을 체결했다. 교황청이 1797년 톨렌티노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폴레옹은 1798년에 베르티에 장군을 보내 교황을 포로로 잡게 했다. 교황은 1799년에 프랑스에서 사망했다. 이 1,260년 기간은 31-39절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5-9절의 역사는 31-39절의 역사와 병행하여, 다니엘서 11장 안에서 두 가지 증언을 제시한다. 두 서술은 동일한 예언적 이정표를 공유하며,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의 역학을 드러낸다. 각 기간은 삼 년 반으로 상징되며, 결말에는 남방 왕이 우위를 점하고 북방 왕을 사로잡아 남방 땅으로 끌고 가며, 그곳에서 두 북방 왕이 모두 죽는다. 두 경우 모두, 본문이 말하듯이, 남방 왕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다: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고관들, 그리고 은과 금으로 된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사로잡아 이집트로 끌고 갈 것이며, 그는 북방 왕보다 여러 해 더 오래 있으리라. 다니엘서 11:8.

프톨레마이오스에게는 이것이 이전에 북방 왕이 약탈해 간 보물이었고; 나폴레옹에게는 그것이 약탈되어 프랑스로 옮겨진 바티칸의 재산이었다. 이 두 가지 증언은 북방 왕의 죽음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상징됨을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은 가톨릭 교회를 상징한다:

그가 나를 영으로 광야로 데려가니,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짐승은 신성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17:3.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국제연합이다. 요한계시록 17장은 1798년의 치명상 이후 그녀가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묘사한다. 여덟째 왕국으로서 그녀는 통치를 재개하는데, 이는 짐승을 타는 것으로 상징된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 큰 성이다. 요한계시록 17:18.

1798년의 치명상은 북방의 왕이 말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으로 5-9절에서 예표되었다. 다니엘 11장의 이 두 흐름은 41-45절과 병행된다. 41절에 언급된 미국의 일요일법은 교황권이 짐승을 타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한다. 그 기간이 이 두 흐름에 반영되어 있다. 엘렌 화잇이 다니엘 11장에서 성취된 "많은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언급할 때, 5-9절과 31-39절은 41-45절과 상응한다.

## 오직 40절

31절에서 45절 사이에서 오직 40절만이 사흘 반의 예언적 기간을 벗어나 있다. 그것은 다니엘서의 45절 중 마지막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독특한 역사를 나타낸다. 16절에서는 이교 제정 로마의 역사가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네 통치자를 통해 전개된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의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는 24절의 '때'를 성취하며 제정 로마의 360년 통치를 시작했다:

그는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에도 평안히 들어갈 것이며, 그의 조상들도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할 것이고, 약탈물과 전리품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흠여 나눌 것이다. 또한 그는 견고한 요새들을 치기 위한 그의 계책을 미리 세우리니, 한동안 그러하리라. 다니엘 11:24.

악티움 이후, 로마는 기원전 30년에 이집트를 속주로 삼았다. 360년 뒤인 330년에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이 '때'는 예언적으로 교황 통치 1,260년과 5-9절의 7년과 일치한다.

16절부터 30절까지는 이교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데, 여기에는 마카베오가 로마와 맺은 동맹과 그리스도의 계보가 포함된다. 그러나 16-30절은 31-39절과 41-45절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30절에서는 40절을 제외하고 일관된 예언적 흐름이 드러나며, 40절에서는 '끝의 때'가 1798년과 1989년으로 표시된다.

2절과 3절에서의 약간의 예외(여덟 명의 대통령 중 마지막이 유엔의 열 왕을 통제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대목)를 제외하면, 처음 두 절은 40절과 일치하며, 이는 일요일 법령과 여섯째 왕국에서 일곱째와 여덟째 왕국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3절과 4절은 45절과 다니엘 12장 1절과 부합하며, 헬라 왕국의 흥망을 묘사하고, 41절부터 다니엘 12장 1절에 이르는 구간에서의 교황권의 수립과 몰락과 평행을 이룬다. 여인과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둘 다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끝을 맞으며, 이로써 40절의 역사 바깥에서 다니엘 11장의 시작과 끝의 윤곽이 형성된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엔을 상징하며, 두로의 창녀(41절 이후의 북방 왕)와 음행하는데, 그녀는 짐승이자 용이다.

## 아홉째와 열째 구절

5-9절은 1798년의 마지막 때에 가서 끝나며, 10절은 1989년을 가리킨다. 따라서 9절과 10절 사이, 곧 1798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은 40절의 드러난 부분을 나타내며, 그 숨겨진 역사의 시작을 알린다. 설명하자면, 다니엘 11장의 거의 모든 절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교황권의 지배를 반영한다. 40절은 1798년에서 미국의 일요일법령까지를 다룬다. 6-9절은 교황권 시대를 예표하고, 10절은 1989년 소련의 붕괴를 예고한다. 그러므로 11-15절은 1989년부터 일요일법령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며, 이는 16절, 31절, 41절에 나타나 있다.

40절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1798년부터 1989년까지로, "끝의 때"로 시작해 "끝의 때"로 끝난다.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이 끝나는 1989년에 시작된다. 1절과 2절은 1989년부터 시작하는 일련의 대통령들을 지목하며, 40절의 두 번째 부분과 일치한다. 11절은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을 가리키고, 12절은 승리한 남방의 왕이 자신에게 초래하는 결과를 강조한다. 13절은 성취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11절이 40절의 두 번째 부분에 속하며, 1989년 이후이지만 일요일법(41절) 이전임을 주목한다.

13-15절은 기원전 200년의 파니온 전투를 가리키는데, 그 전투와 연관되어 이교 로마가 인간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해이다. 16절에서의 폼페이와 예루살렘 입성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41절이 미국의 일요일 법을 가리킨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를 제공한다.

다니엘 11장의 모든 예언의 선과 그 역사적 성취는 40절의 역사(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까지)에 속하거나, 41절부터 다니엘 12장 1절까지에 해당한다. 총 45절 가운데 1절, 2절, 7-15절, 그리고 40절, 합계 열두 절이, 구절을 줄에 줄을 더하는 방식으로 겹쳐 볼 때 40절의 시간표에 적용된다. 40절은 1989년에 두 구간으로 나뉜다. 1절, 2절, 그리고 10-15절은 그 후반부와 일치한다. 1절과 2절은 땅의 짐승의 역사에서 대통령들의 계보를 추적하고, 10-15절은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까지 북방 왕(교황 권력)이 주도한 세 차례의 대리전쟁을 묘사한다. 이 세 차례의 대리전쟁은 40절에서 "병거와 배들과 기병"으로 지칭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